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고 늙은이들과 로총각들이 점점 불어나며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것이 요즘 농촌의 풍경이다. 오늘 소개하려는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은 홍수의 피해를 받아 복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단장된 변경마을인데 겉보기엔 기타 농촌마을과 다름없지만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의식, 촌민들의 포만된 열정으로 치부의 길로 줄기차게 달려가고있다. 경제발전을 다그치는 진달래촌에서 필자는 농촌의 더욱 밝은 미래를 그려보게 된다.

향토산업을 자랑하는 진달래촌

—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의 새 모습을 필에 담아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은 원래 명암촌이었는데 화룡시에서 2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있다. 촌의 면적은 4,369헥타르, 그중 경작지면적이 644헥타르이며 주요하게 평원과 산간지대로 형성되었다. 촌에는 497호에 도합 1,298명이 살고있는데 그중 조선족이 1,249명으로 전체 인구의 96% 이상을 차지한다.

2010년 7월 27일, 진달래촌은 화룡시에서 가장 엄중하게 특대홍수의 피해를 받았는데 그번 홍수로 촌의 다리 세개가 무너지고 제방뚝도 400여미터 밀려갔으며 102호의 가정에 홍수가 들이닥쳐 촌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무너진 집은 세채로 경제손실은 도합 320여만원에 달했다. 무정한 홍수앞에서 화룡시 당위, 정부에서는 홍수방지사업을 확실히 한후 복구건설을 잘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상하가 하나같이 단결된 마음으로 발벗고 나서니 홍수를 물리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홍수가 지나간후 더욱 과중한 임무는 어떻게 복구건설을 잘하는 가였다. 진달래촌은 장백산과 가까운데 정부에서는 이 점

을 고려한후 화룡시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결합하여 진달래촌을 조선족민속특색을 갖춘 마을로 새롭게 탄생 시키기로 결정지었다. 이렇게 옛날 명암촌은 전체 촌이 새로운 기지로 이사하게 되었으며 진달래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현재까지 촌의 건설에 투입된 자금은 3,000만원으로서 건물을 전부 조선족민속건물 분위기로 지었으며 촌의 연선은 장백산관광교통도로로서 이는 촌의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또한조선족민속관광이라는 타이틀로 농촌생활기지로 우뚝 솟아 농촌문화를 잊어가는 현대인들에게 민족 문화, 음식, 향토풍습을 체험하는 관광코스로 인기를 모으고있다. 현재 촌에는 농가려관 40호가 있는데 이는 고급스러운 도시호텔과는 반대로 시골마을의 훈훈한 분위기와 정을 만끽할수 있는 아담하고 전통적인 숙박지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끈다.

이렇게 매년 5.1절과 관광성수기때면 주내는 물론 수많은 국내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민속무용을